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현지시간) 북-러 정상회담장인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북·러 정세 발전 위해 맞손

루스키섬 소재 극동연방대에서 확대정상회담 열려... 비핵화 문제 집중 논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확대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3시4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2시4분)경 블라디보스토크 남쪽 루스키섬 소재 극동연방대에서 열렸다. 앞서 두 정상은 오후 2시6분경부터 1시간 가량의 단독정상회담을 가졌다.

확대정상회담에는 러시아 측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외교보좌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배석했고 북측에서는 리호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번에 우리가 러시아를 방문한 건 푸틴 대통령과 직접 만나 지금 초미의 관심사 되고 있는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전략적으로 이 지역 정세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으로 정세를 관

리하는 데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고, 전통적인 관계를 요구에 맞게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키워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방금 전에 각하와 함께 한 시간 넘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관심사가 되는 문제들, 초미의 문제들의 의견을 교환했는데 그런 훌륭한 시간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푸틴 대통령이 매우 바쁜 속에서도 이렇게 시간 내주고 모스크바로부터 수천 km 떨어진 여기 와서 훌륭한 대화를 할 시간을 마련해준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푸틴 대통령 각하와 친근한 벗들에게 보내는 우리 국가, 정부, 인민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린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단독 회담에서 우리 관계의 역사에 대해 언급하고 현재 실태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얘기했다"며 "그리고 조선반도 정세에 대해

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가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김 위원장이 우리의 초청을 수락해 러시아를 방문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오후 2시6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1시6분)경 열린 단독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지금 전 세계의 초점이 조선반도 문제에 집중돼 있다"며 "(이번 회담이) 조선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서로 견해를 공유하고, 앞으로 공동으로 조정해 나가는 데 아주 의미있는 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도 이번 회담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현재 발전하고 있는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있고 북한이 현재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큰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뉴시스

전북대, 취업네트워크 구축 위해 공공기관 교류 강화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지역 주요 공공기관과 취업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화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김동원 총장은 기관 취업업을 희망하는 학생 11명과 함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했다. 국

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윤태진 이사장을 비롯해 채용 관련 부서장, 현직 선배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윤 이사장의 기관 소개를 시작으로 기관장·학생들 간의 열린 대화가 이뤄졌으며, 기관 주요 시설 탐방과 학생 멘토링 등의

시간을 가졌다. 김동원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위치한 중요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대학도 학생들이 다양한 실무 역량을 쌓으며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고창군 공고 제2019-663호

분묘개장공고(1차)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반룡-월곡) 개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18조, 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권리인은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연번	소재지	분묘번호	지번	기수	비고(모변지)
1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4	산88-2	1기	산88
2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5	산88-2	1기	산88
3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9	산84-6	1기	산84-3
4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32	산100-8	1기	산100-3

2. 개장사유: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반룡-월곡) 개설공사 편입
3.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공고기간 만료후 화장하여 남몰 안치
 - 가. 유언표지: 신고후 연고자와 합의개장
 - 나. 무연표지: 공고기간 만료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공고자)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고창군 추모의 집(고창군 부안면 북분자로 559)
6.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7.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호적), 제적,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서 신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우리군에서 임의 개장하겠습니다.
8. 기타사항: 분묘개장 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갑을합니다.
9. 신고처: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토목팀 ☎ 063-560-2562

2019년 4월 25일 고창군수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용자금 신청하세요”

전북도,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위해 연중 실시 대출금리 연2% (화장실 1%) ·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전북도에서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 용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용자 대상은 도내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위탁운영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용자제외대상은 영업허가(신고) 6개월 미만이거나, 휴·폐업 업소, 용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받은 업소, 기 용자받은 업소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이다.

용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2억2000만원, 식품접객업은 7000만원이며,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은 1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용자조건은 금리 연 2%(화장실 개선 1%)이며, 2

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전북은행에서 용자 가능 여부 상담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영업소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건강안전과 ☎063-280-4673) 또는 시·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 용자를 통해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과 소비자들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외에도 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이번 사업에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지역균형발전 위한 발걸음 ‘분주’

전북도, 재정현장 컨설팅 개최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설명 등

전북도는 기재부 주관으로 2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찾아가는 재정현장 컨설팅’을 개최하고, 예비타당성제도 개편 설명회와 예비타당성조사, 민간투자사업 등 전북도 현안사업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재부는 전북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4월3일 발표한 예타제도 개편의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예타 종합평가(AHP)시 여전히 경제성 비율이 여전히 높아 산업기반 시설과 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의 낙후지역에서의 건설사업(SOC) 추진이 어려워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가치제 상향조정, 지역낙후도에 따라 경제성 평가 차등적용 등 예타 추가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인계~쌍치구간(잠재터널1.6km포함) 시설개량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사업비를 반영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신속 추진을 요청했다.

디지털 라이프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금강지구 영농 편의 증진사업(금강3지구) 예타조사 신속통과를 요청했다.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확장, 새만금 순환도로 건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사업, 새만금 아트센터 건립 예타대상사업 선정 및 통과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서부내륙 고속도로(부여~익산) 건설 조기착공 추진, 새만금 실험만 부두 시설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등을 건의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전문무역상사 매칭데이 개최... 창업기업 글로벌 진출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센터)는 25일 전북센터에서 ‘전문무역상사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 매칭데이는 창업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문무역상사 9

개 업체가 참여해 도내 40여 창업기업과 1:1 매칭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에서는 전문무역상사가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이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점검했다.

향후 전북센터는 전담대기업인(주)효성그룹 해외영업팀과 충남센터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창업기업 제품의 수출 가능성을 타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센터 박광진 센터장은 “무역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도내 창업기업의 수출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 당부... 의심증상 발생 시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전북도에서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3월 이후 지속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과 가정 등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연령별로는 7-12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가장 높고, 13-18세에서

두 번째로 높아, 집단생활을 하는 초·중·고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고,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

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이 지날 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손을 자주 씻고,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감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실천하는 등의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